

연구논문

# 경계인의 정치학

정치학자 이완범의 생애와 학문 궤적

---

김성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수료, 정치학 전공  
septeighth@gmail.com

고유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정치학 전공  
goyuhyun@aks.ac.kr

---

I. 머리말

II. 연구 배경과 방법

III. 이완범의 생애와 학문 궤적

IV. 맺음말

---

## I. 머리말

---

정치학자 이완범은 1979년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입학의 계기로 정치학에 입문한다. 그는 대학 신입생으로 10.26사태와 12.12사태를 연달아 경험한다. 두 사태 이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찾아온 서울의 봄은 짧았다. 대학생 이완범은 변화에 대한 좌절로 신군부와 시대에 저항하는 방식을 두고 고민한다. 그가 선택한 저항은 사회과학을 공부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해 드러낸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게 그는 연세대학교 이념 서클인 목하회(木下會)에 입회한다. 그곳에서 그는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조우한다.<sup>1</sup> 또 목하회에서 그의 생애와 학문 궤적에 큰 영향 준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한 만남의 결과는 정치학자 이완범의 밑거름이 됐다.

그는 1997년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설치된

---

※ 이 글은 2025년도 2학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정치학 전공 수업으로 개설된 ‘한국의 정치학과 정치학자’와 이완범 교수 정년 퇴임 강연 ‘한국정치사의 길’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한국의 정치학과 정치학자’ 수업과 ‘한국정치사의 길’을 통해 연구와 이 글의 작성 기회를 마련해 주신 옥창준 교수님과 발표와 토론으로 큰 도움을 준 정치학 전공 동학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한다. 아울러, 세 분의 익명의 심사자께도 감사드린다. 세 분의 예리한 지적과 비판 덕분에 간과되었거나 허점이 있던 부분을 수정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 해결하지 못한 한계점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1 이완범은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시리즈에 모두 참여한 유일한 저자이다. 그는 박현채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3: 정치·사회 운동의 혁명적 전개와 사상적 노선』(파주: 한길사, 2004)에 글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 1943~46」로 해당 시리즈에 최초 참여했다. 이후 최장집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4: 민중항쟁·무장투쟁·문화예술운동·한국전쟁의 해명』(파주: 한길사, 2006)에는 글 「해방전후사 연구 10년의 현황과 자료」로 참여했다. 시리즈 마지막 책인 박명림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6: 남북한 해방전후사 연구의 성과와 입장에 대한 종합적 안내』(파주: 한길사, 2006)에는 글 「해방 3년사의 쟁점」으로 참여했다. 한편 박지향 외,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서울: 책세상, 2006)에는 글 「해방 직후 국내 정치 세력과 미국의 관계, 1945~1948」로 참여했다.

현대사연구소에 채용돼 본격적으로 전업 연구자의 길을 걷는다. 이후 그는 정치학자이자 한국학자로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다. 여러 연구로 쌓아 올린 그의 학문 세계에서는 언제나 신탁통치와 한반도 분할의 문제가 중심이었다. 2023년, 그는 자신의 석사학위논문 주제였던 한반도 신탁통치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한번 확장·발전시켜 세상에 내놓았다.<sup>2</sup> 20대에 손에 쥐었던 자신의 석사학위논문 주제를 40년 동안 놓지 않고 다양한 시각과 한반도 밖의 사례와 결합한 연구자 이완범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이완범에게 신탁통치와 한반도 문제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가 지난 40년간 한반도 문제에 천착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에 대한 구술생애사 면담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지금까지 이완범이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그가 신탁통치와 한반도 분할 문제에서 결가지처럼 뻗어난 세부 주제를 발굴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정치학과 한국학의 연구 추세와 비교하면, 그는 독특한 연구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유행과 시류에 따라 연구 주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해방 이후 신탁통치 논쟁과 한반도 분할을 고집스럽게 연구했다.

그 선택의 이유를 알기 위해 그에게 직접 생애와 학문적 선택 과정을 듣고 그 학문 궤적을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구술생애사 면담을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한국학과 정치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수집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

2 이완범, 『신탁통치 1: 이론과 글로벌 사례』(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3a); 이완범, 『신탁통치 2: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안』(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3b); 이완범, 『신탁통치 3: 한국 정치세력의 인식과 대응』(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3c).

## II. 연구 배경과 방법

---

한 명의 학자가 평생 구축한 지식 세계를 오로지 연구 저작을 통해서만 이해하는 것은 그 뒤를 따르는 후학들에게 버거운 일이다. 연구자가 자신의 이해와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지식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최대한 정성껏 글을 작성했을지라도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장악한 이와 아직 장악하지 못한 이의 이해의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가 직접 자신이 구축한 지식 세계에 대해 독자에게 난해한 연구물이 아닌 말로 설명한 것을 듣고 읽는 것은 후학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이에 이 연구는 이완범은 왜 그렇게 신탁통치와 한반도 분할사에 집중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현재도 활발히 연구를 이어 가는 한국 정치학자의 구술에 기반한 연구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에서 시작되었다.<sup>3</sup>

인류학자 데이비드 G. 만델바움(David G. Mandelbaum)은 생애사 연구에서 차원(dimensions), 전회(turnings), 적응(adaptations) 세 개념에 입각한 분석을 강조한다. 차원은 연구 대상의 생애사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적, 사회심리적 특징을 의미한다. 한편 전회는 연구 대상의 생애사에서 일종의 전환점에 해당하는 시기로 특정한 사건이나 경험과 맞물려 발생한다. 적응은 연구 대상의 생애 중 자신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나 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세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생애사 연구는 연구 대상의 생애 선택 과정에서의 자율성과 타율성을 입체적으로

---

3 다음은 생애사에 기초한 한국 정치학자에 대한 연구이다. 김학준, 「대한제국 시기 정치학 수용의 선구자 안국선의 정치학: 그의 생애와 정치학 관련 저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7-1(1997), 29~48쪽; 예대열, 「열전의 경험과 냉전의 경계 월경: 순천 출신 재독 정치학자 조명훈의 생애사」, 『담라문화』 76(2024), 99~144쪽; 예대열, 「개인 기록을 통해 본 해방 공간 순천: 재독 정치학자 조명훈의 중학 시절 일기를 중심으로」, 『사총』 116(2025), 1~40쪽.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4</sup>

구술생애사 면담 진행에 앞서, 이완범의 연구와 활동을 정리하고 그의 생애사에서 차원, 전회, 적응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설계했다. 1차 구술생애사 면담은 2025년 10월 24일에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현대한국연구소 소장실에서 진행했고, 출생, 성장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 임용 과정까지를 청취했다. 2차 구술생애사 면담은 2025년 11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했으며, 그의 연구 방법론 선택과 학문적 비판에 관한 생각 등에 관해 청취했다. 구술생애사 면담은 음성 녹음과 영상 촬영을 병행했으며, 면담 종료 후 면담 일지를 작성했다. 이후 음성 녹음 파일을 활용해 전사(全寫)를 원칙으로 한 녹취록을 작성했다. 작성한 녹취록과 면담 일지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을 작성했다.

### Ⅲ. 이완범의 생애와 학문 궤적

---

#### 1. 성장 배경과 가족사: 실향민 1.5세대

이완범은 1961년 2월 9일 서울시 동대문구 위생병원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양친은 해방 이후인 1948년에 서울로 월남한 실향민이다. 아버지는 1922년생으로 평안남도 강동에서 태어나 함경북도 경원으로 이주해 성장했다. 그의 아버지는 1922년에 설립된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전신)에서 공부하기 위해 서울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

---

4 David G. Mandelbaum, "The Study of Life History: Gandhi," *Current Anthropology*, Vol. 14, No. 3(1973), pp. 180~182.

어머니는 1928년생으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그의 어머니는 동나남(라남)고등여학교를 졸업하고 이북 지역이 해방 후 소련 지배하에 있는 동안 교사로 일했다.

해방 이후 소련 지배 지역에서 시작된 토지개혁으로 그의 외조부는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재산을 몰수당한다. 외조부는 이러한 사정에도 고향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식만큼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기를 원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완범의 어머니는 서울에서 공부 중인 이완범의 아버지와 결혼해 월남한다.

그의 양친 모두 이북 지역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으나 해방 후 이북에서의 재산 손실과 월남 과정 때문에 이전과 같은 경제적 수준을 누리지 못했다. 게다가 그의 어머니는 월남 과정에서 고등여학교 졸업과 교사 경력을 증명할 수단을 챙기지 못해 서울 정착 이후 교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서울에서 치과의사로서 일할 수 있었기에 중산층의 경제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가 자라면서 들은 양친의 월남과 정착사는 그가 실향민의 자손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실향민 1.5세대라고 정의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초등학교 선생님을 계속하려면 그 이제 이 고등여학교, 그러니까 졸업했다는 그 이 졸업장이나 무슨 증명서가 필요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챙기지 못하고 넘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경력은 단절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경성치과전문학교라고 하는 이제 학교를 이제 해방 전에 입학해서 이제 그제 이제 해방 후에는 이제 서울치대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대안, 국립서울대학교 설치안에 따라서 그래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영유할 수는 있었죠.

저는 이제 실향민의 자손으로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긴 했지만 명실상부한 서울 사람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 명실상부한 서울 사람들은 이제 사대문 안에서 이제 부모가 이제 태어나서 그런 분이신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평안남도 강동에서 태어나셨고 저희 저기 어머니는 이제 평안, 저기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셔서 보기에 따라서는 뭐 1.5세 뭐 하여튼 서울 사람이다.

월남 후 그의 양친은 한국전쟁 중 인민군 치하 서울에서 생존과 관련된 문제를 겪는다. 양친은 월남 이전의 경험과 한국전쟁 중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공주의 성향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그는 기억했다.

1950년에 이제 6.25가 터지면서 이제 실향민의 존재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남쪽으로 이제 피신한 상황에서 이제 남겨진, 남겨진 서울 시민들은 이제 인민군 치하에서 이제 지내야만 했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그 보기에 따라서는 이북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반공의 이제 전사(戰士)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뭐 그렇지 않았어요.

월남이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머니의 경우는 이제 지주의 딸로서 이제 북한 정권의 그러한 그 이 토지개혁 정책에 대해서 우리 외할아버지는 뭐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북한에 사셨거든요, 계속. 그런 면에서 이제 서북청년단의 반공주의적인 그러한 월남자들과는 좀 다른, 다른 류의 저기 이념적인 지향을 가지셨다. 예, 그런 뭐 완전히 이념이 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소 이제 온건하다고나 할까요. 뭐 그러한 그 이념적인 분위기를 가지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완범의 가족사는 그가 훗날 연세대학교 이념 서클 목하회에 입회해 공부하고 신탁통치와 한반도 분할 문제를 자신의 학위논문 주제로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 2. 정치학 입문: 연세대학교와 목하회

이완범은 1979년 연세대학교 정법대학에 입학한다. 대학에 입학한 첫째, 그는 10.26사태와 12.12사태를 경험한다. 대학생이 되자마자 경험한 격변하는 정치 상황은 훗날 그의 학문적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같은 해 더 현실적 이유로 그는 전공 선택을 두고 고민에 빠진다. 그는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이제 연대 정법대학에 이제 계열별로 입학했는데 그 당시 정법대학이 이제 선택지가 이제 정치학, 행정학 그리고 신문방송학, 법학 이렇게 네 개 과였거든요. 근데 법학은 이제 법전을 달달 외우는 학문인 것 같아서 그리고 뭐 고시를 하는 학문인 것 같아서 좀 선택 순위에서 이제 빠졌고, 이제 신문방송학은 이제 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학은 뭐 역시 고시랑 연결되는 학문이라서 뭐 좀 그랬고 그래서 뭐 원래 하던 정치학을 이제 했죠.

네 가지 선택지 중 그의 선택은 정치학이었다. 고시 공부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그는 전공 선택지에서 법학과 행정학을 제외한다.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정치학과 신문방송학, 둘 중 하나였고 결과적으로 정치학을 선택했다. 사실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그는 학보사인 《연세춘추(延世春秋)》의 예비수습기자로 선발되어 활동한다. 1년 동안 예비수습기자로 활동하던 그는 소위 ‘뽕뽕이’에 지쳐 기자 생활을 그만둔다. 전공 선택과 《연세춘추》 탈퇴를

직접적으로 연결해 말하지 않았지만, 이는 그가 신문방송학이 아닌 정치학을 선택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신문사에 들어가기에 이제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면접까지 통과해 가지고 예비수습을 하고 이제 예비수습을 하면서 예비자를 떼고 수습을 하기 전까지 이제 선배들이 좀 뭐라 그러나요 저기 기자 후보생들에게 지나치게 일을 많이 시켜요. 이렇게 뽕뽕이를 돌리는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이제 예비수습기자 단계에서 예비 떼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이탈해서 이제 본격적인 신문, 학보사 기사는 뭐 하지 못했는데요.

상술한 바와 같이, 그가 대학에 입학한 당시 한국은 10.26사태와 12.12사태로 인해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상황은 권위주의 종식과 민주화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 서울의 봄으로 이어진다. 서울의 봄이 가져온 바람에 학내의 이념 서클은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목하회는 신입회원을 받는다. 그 기회로 그는 목하회에 입회한다. 그의 기억에 목하회는 학내나 거리에서 집회 시위와 같은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학술적인 방식으로 학생 운동을 꾀하는 집단이었다.

이완범은 당시 대학생으로서 대학생과 시민사회의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저항에 깊이 공감했다. 그렇지만 그는 전두환 신군부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선언문을 학내에 배포하거나 소규모 시위를 주동한 뒤 군대가 아닌 감옥으로 향하는 방식의 저항을 자신도 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는 솔직하게 그러한 선택을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대신 청년 이완범이 낸 용기는 사회과학 공부였다. 그렇게 그는 목하회에 입회해 한국 정치와 사회를 이해하고 문제점 등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학과 과정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혹은 가르칠 수 없는) 사회과학 공부에 몰두했다.

80년대 전반기, 학원자율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80년대 전반기의 상황은 그렇게 시위 전단 하나를 뿌려도 그 구속이 되는 그러한 엄혹한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운동권 학생의 전형적인 신변 정리에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에는 용기가 부족했다고나 할까, 용기가 2% 부족했어요. 감옥에 가야 하는데 감옥에 가기에는 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배운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제 이제 그때 그때 이제 대학을 졸업했을 때 졸업할 즈음에 이제 제가 있었던 그 서클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이제 저한테 그 사회과학 공부를 시켰어요. 이제 흔히 얘기하기에 사회과학 공부 그러면은 이제 80년대에 사회과학 공부는 대개 이제 정치경제학 공부였어요. 그러니까 맑스-레닌주의 그러니까 맑스의 저작을 읽고 레닌의 저작을 읽고 그것을 이제 한국 사회에 적용시키는 그러한 공부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서클은 그러한 이 그 당시 교과서적인 공부보다 조금 학문적인 공부를 하고 있었던 서클이었거든요.

이완범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생일대의 책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조우한다. 그는 『해방전후사의 인식』과의 첫 만남과 그것이 자신의 학문적인 선택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1979년 10.26 직전에 나와서 10.26 이후에 이제 판금된 책이죠. 그 판매가 금지된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80년 서울의 봄에서 해금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읽었죠, 1980년에. 그래서 1980년에 그 책을 읽으면서 뭐 발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80년에 읽은 책을 이제 2025년 이제 45년이 지났는데 이제 전공을 하고 있죠, 제가 해방전후사를. 그래서 이 그때 서클 활동을 통해서 받은 지적인 그러한 세례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첫 번째 장면이 아닐까. 그럼 한국현대정치사를 전공했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이제 80년 서울의 봄 시절에 읽었던 『해방전후사의 인식』<sup>5</sup> 그것이 이제 저의 지적인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의 모멘텀을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목하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의 지식 세계를 구축하고 형성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준다. 그는 목하회의 선배 유헌식<sup>5</sup>의 영향으로 독일 사회과학의 역사주의 논쟁을 공부한다. 독일 사회과학의 역사주의 논쟁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독일 유학이라는 목표로 이어진다. 그는 사회과학 서적 읽기와 독일문화원 어학 수업을 병행하며 유학을 준비한다. 공부한 독일 철학에 기반하여 실증주의적 정치학 방법론에 대해 비판하는 학사 졸업논문을 쓸 만큼 그에게 있어서 독일 유학은 중대한 목표였다. 그런데 목하회의 다른 선배인 조성윤<sup>6</sup>은 독일 유학을 꿈꾸는 그를 만류한다. 시대 상황도 그가 독일 유학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준다. 1960년대에 있었던 동백림(東伯林) 사건<sup>7</sup>과 그것에 연루되었던 이들의 행적은 그가 독일에서 공부하겠다는 결심을

- 
- 5 유헌식은 이완범이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던 해인 1979년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학부 과정을 졸업했다. 그는 이후 연세대학교 석사과정을 통해 철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는다. 이 시기는 이완범이 목하회에 입회해 사회과학을 공부하던 시기와 겹친다. 유헌식은 1986년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Goethe University Frankfurt)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1995년에 박사학위를 받는다. 한국 귀국 후 단국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했다.
  - 6 조성윤은 1977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학부 과정을 졸업했다. 이완범이 목하회에 입회해 공부하는 동안 그는 1983년에 동대학원 사회학과 석사과정, 1992년에 사회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했다.
  - 7 동백림 사건은 1967년 7월 8일부터 17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발표된 박정희 정권 시기의 대표적인 공안 사건이다. 동백림 사건 이전인 1967년 4월 14일 서독 주재 조선일보 기자 이기양이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취재를 위해 체코슬로바키아에 입국한 후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다. 동백림 사건의 주요 인물인 임석진은 이 소식을 접하고 이기양의 실종이

흔들었다. 사람과 시대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의 학문적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조성윤 선배라고 하는 사회학과 이제 선배가 있었는데 그, 그 선배한테 제 얘기를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왜 전과(轉科)자가 되려고 그러냐’ 이 과를 왜 바꾸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그 선배가 그냥 ‘너 그러다가 이제 낭인이 될 거다’ 뭐 그러한 독일에서 이제 공부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가서 이제 실패한 선배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본과 정치학 대학원으로 이제 들어갔죠.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그 당시 이제 그 임석진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고, 독일에 이제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의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뭐 그 인식론에서 꼭 읽어야 되는 책인데, 그 헤겔의 『정신현상학』의 10대 해설서 중에 임석진 교수님이 이제 그 10대 해설서 중에 하나를 쓰신 분이거든요. 독일에서 이제 이 학위를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이제 국내에 이제 압송돼서 오셨고.

---

북한에 의한 납치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진다.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대북 접촉을 한 사실이 발각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5월 19일 박정희와 면담 과정에서 접촉 사실을 털어놓는다. 이에 박정희는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을 통해 수사 지시를 내린다. 중앙정보부는 약 두 달 뒤인 1967년 7월 8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사건을 수사한 중앙정보부는 임석진·황성모·윤이상·이응로 등 194명이 1958년 9월부터 동베를린의 북한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활동을 하고 그중 일부는 입북 또는 노동당 가입을 하거나 남한에서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의 발표와 달리 간첩죄가 인정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2006년 1월 26일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동백림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 정부에 사과를 권고했다. 「동백림 사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백림사건」, 〈민주화운동사전〉.

이완범은 독일 유학 대신 모교의 정치학 석사과정을 선택한다. 그러나 그는 한동안 정치사상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정치사상 전공 교수 밑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성적이 나쁘지 않아 그들의 눈에 띌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지만, 그는 정치사상 전공 교수의 지도 학생이 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상을 하고 싶어서 이제 사상, 사상 전공하신 선생님들 밑에서 이제 조교를 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비교적 학부 때 성적은 좋은 편이라 이제 선생님들이 저를 좀 불러 주실 줄 알았는데 이 사상 전공하신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다소 이제 그 지도학생을 이렇게 지도학생과의 인간관계가 느슨한 편이라 이제 그 이게 뭐 발탁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로 정치사상에 대한 학문적 흥미를 잃어 가던 즈음 그는 한홍수<sup>8</sup> 교수의 지도학생이 될 기회를 얻는다. 한홍수 교수는 학문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한홍수의 문하생이 된 그는 자연스럽게 학문적 관심을 돌리게 된다. 그는 이때부터 방대한 사료에 기반해 다양한 사실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역사적 사건과 정치적 결정 등을 복합적으로 해석하는 역사적 접근법(historical approach)을 배워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한홍수 교수님은 이제 그 당시 우리들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의리의 사나이로 불렸어요. 의리, 의리가 있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이제 공부하는데 좀 지장이

---

8 한홍수는 1972년부터 2002년까지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1997년에는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설치된 현대사연구소의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학생들을 몰고 다니면서 밥도 사주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아침 일찍 출근도 장려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하고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느슨한 관계인 사상 전공하시는 분이 이제 저를 써 주길 바랐는데 그쪽에서 부르지 않고 이쪽에서 이제 불러서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이제 한홍수 교수님 문하생이 됐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뭐 한국정치 전공이시니까 그리고 한국정치사 전공이시거든요. 그래서 역사, 역사를 택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한국정치사, 독립협회 이런 거 전공하셔가지고 그런 그런 데에 이제 일가견이 있으셔가지고 저도 뭐 자연스럽게 그런 거 역사적인 접근, 히스토리컬 어프로치(historical approach)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이제 지도교수님의 영향을 이제 받았죠.

표면적으로는 한홍수 교수의 영향력이 가장 컸지만, 이런 그의 선택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다. 가족사와 목하회를 통해 접한 『해방전후사의 인식』, 그리고 석사과정생으로 경험한 역사학자 김용섭의 한국근대사 수업과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의 존재도 그가 세부 전공과 석사학위 논문 주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한국정치로 이 세계적인 학자가 되기 위해서 한국정치를 전공하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도 있겠다. 브루스 커밍스가 또 그 당시 이제 화두가 됐었던 그런 시절이어서 브루스 커밍스와 같은 학자가 되고 싶어 가지고 한국정치, 해방전후사 이것을 이제 전공하겠다고 이제 석사과정 중에 주제를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논문을 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석사, 석사를 이제 전공한 것이 이제 박사 전공까지 갔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생의 그것이 저기 연구 주제가 그때 이제 마련이 되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가족, 가족의 가족사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우리 때 이제 80년대에 이제 그 이른바 운동권 내에 그 민족 해방파 NL파와 PD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플스 디모크라시(People's Democracy) 그러니까 피플스 디모크라시 파는 이제 대개 일반적으로 맑스-레닌주의에 보다 더 친착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 NL파는 이제 주체사상에 이제 북한, 민족 문제, 민족 해방 이런 거에 더 이제 반미, 반제국주의 이런 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친착을 하는 편인데 그러한 중에 이제 한국현대사를 택했는데 한국현대사 전공은 다소 NL적인 저기 전공 테마거든요. 그래서 뭐 PD적인 공부를 안 한 것은 아닌데 맑스-레닌주의 공부도 했는데 이제 NL쪽에 친화적인 공부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사와 관계가 있어요.

그는 1985년에 석사학위논문으로 「한반도 신탁통치안과 국내정치: 1942-1948」를 완성한다. 석사과정을 마치고 병역 문제로 고민하던 중 그에게 미국 유학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주어진다. 당시 그의 어머니가 미국 이민을 고민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그는 병역 문제를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가 만들어 낸 석사장교 제도를 통해 6개월 복무로 해결한다. 그리고 그는 미국 대학의 이정식, 브루스 커밍스에게 박사과정 입학에 대해 문의한다. 그는 두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지만, 결국 미국으로 가지 않는다. 그의 선택은 한홍수 문하생으로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것이었다.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국내 학계의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었다.

예를 들면 고대 정외과에서의 분위기는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 예일을 나왔다고 해서 국내, 국내에 이제 한국정치학 기준으로 해서 한국정치 연구의 수준이 그거보다 뭐 하버드, 예일보다 못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학계의 내셔널리즘이 이제 풍미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이

제 하버드, 예일 가가지고 한국정치 해 봤자 뭐 피상적인 그러한 것을 전공하고 뭐 수학을 통해 가가지고 뭐 계량적인 그런 거를 위주로 이제 연구하고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판적인 분위기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 잘 준비된 사람들이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외국 유학은 이제 접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박사과정까지 하게 된 거죠.

이완범은 연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진학한 이후 여러 학술 활동에 참여한다. 그는 신진학자로서 학술회의에 참여하고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개설한 대중 강연에 강연자로 서기도 한다.<sup>9</sup> 또, 평소 문학비평에 관심이 있었던 그는 소설 『태백산맥』의 신간 출간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작가 조정래와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sup>10</sup> 그 시기 학문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자신의 학문적 선택에 영향을 끼친 『해방전후사의 인식』의 시리즈 중 하나인 『해방전후사의 인식 3: 정치·사회 운동의 혁명적 전개와 사상적 노선』에 석사논문 수록을 제안받은 것이었다.

- 
- 9 이완범은 다음 논문을 자신의 최초 소논문으로 발표한다. 이완범, 「해방직후 민족통일 운동에 관한 일 연구: 임정·인공 간 합작 노력과 4당 행동 통일 회의를 중심으로 1945.12.31-1946.1.16」, 『원우론집』 15-1(1987), 235~259쪽. 한편 1988년 1월 26일 그는 역사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한국사 교실이라는 대중 강연의 일환으로 「모스크바 3상회의와 신탁통치안」에 대해 발표한다. 「금주의 학술모임」, 《동아일보》, 1988년 1월 26일. 박사과정에 진학한 다음해 그는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의 소장학술세미나에 참여해 「해방과 분단에 관한 학술검토」라는 제목의 발표를 한다. 「新進학자 전용 發表공간 생긴다」, 《경향신문》, 1989년 9월 26일.
- 10 이완범은 토론 과정에서 외인론과 내인론 개념을 제시하고 조정래의 글이 분단내인론의 입장에서 서술된 점을 강조하고 분단의 과정에서 외인인 미국의 역할이 부재한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또, 분단의 문제를 지나치게 휴머니즘적으로 인식하고 이것이 화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견을 제시한다. 「태백산맥 '해방공간'묘사 타당한가」, 《한겨레》, 1989년 8월 4일.

그 당시 이제 이미숙 편집자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문화일보 기자 하는 본인 데 그분이 이제 제 글을 제 석사논문을 읽고서 야 이거 저기 단행본으로 내도 이제 될 만한 그러한 건데 그 『해방전후사의 인식 3』을 기획하는데 좀 실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실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학계의 분위기는 그러한 글을 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인 학계에서는 매명(賣名)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름을 팔아먹는 거다. 그러니까 아 이게 저기 석사논문 수준이라고 하면 그 수준이 이제 저급한테 그 저급한 수준의 글을 그러한 이 운동, 운동권 사회과학 출판사에 이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이용하는 것이 이제 저기 보수적인 학계에서는 금기시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글을 실을 때 이제 우리 지도교수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나중에 이제 나온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알고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것을 이제 장려, 전혀 장려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완범은 박사과정 중이었던 1990년에 결혼을 한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다. 가정을 꾸린 그는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와 일터로 나간 아내를 대신해 전업주부 역할을 병행하며 생활한다. 그 생활을 이어가던 중 그는 1992년에 지도교수 한홍수로부터 국사편찬위원회 취직 제안을 받는다.

이제 1990년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왕십리, 왕십리 이제 범우아파트라고 하는 뭐 조그마한 아파트에 이제 신혼살림을 차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박사 과정을 이제 다녔죠. 그리고 이제 92년에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 이제 들어갔고 과정생으로서. 과정을 이수한 상태였는데, 88년에 시작했으니까 과정이 이수였는데 92년에 이제 수업은 다 들었는데 그때 이제 박영석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이제 그 저희 지도교수한테 안기부 자료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안기부 자료를 정리할 정치학 그 박사학위 이제 소지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연락을 하셔서 이제 같 사람이 없나 하고 보다가 제가 이제 역사 히스토리컬 어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 절 보고 가 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 갔죠.

국사편찬위원회에 취직한 그는 일과 개인 연구를 병행하며 생활한다. 2년 뒤인, 1994년 그는 논문「美國의 韓半島 分割線 劃定에 관한 研究(1944-1945)」를 완성하고 박사학위를 받는다. 졸업 이후에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연구자 생활을 이어 간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근무하던 중 그는 1996년 학술진흥재단의 박사후연구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에서 방문학자 생활을 할 기회를 얻는다.

방문학자로 미국에 간 그는 국사편찬위원회 재직 시절 인연을 맺은 재미(在美)역사학자 방선주<sup>11</sup>와 재회한다. 그는 이전 만남에서 방선주가 그의 지적 성실성과 진실성을 높게 사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기억했다. 방문학자로 그는 학술진흥재단의 지원과 방선주의 도움으로 미국 생활을 해 나간다.

---

11 방선주는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났다. 양친의 선교 활동 때문에 중국에서 성장한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숭실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으로 이주해 1973년 워싱턴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는다. 그리고 1977년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1979년부터 미국국립문서기록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에서 재직한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연구원으로 출장 온 이완범과 인연을 맺게 된 그는 방문학자 시절 이후에도 이완범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두 사람은 인류학자 앨리스 플레처(Alice Fletcher)가 녹음한 조선인 목소리의 주인공(안정식, 이희철, 송영덕)을 찾는 작업을 함께 하기도 한다. 「1986년 미국서 녹음한 '한민족 첫 음반' 목소리 주인공 2명 찾았다», 《한국일보》, 2009년 2월 13일; 「114년 전 조선인 최초의 목소리, 지하실에 잠들어 있던 역사», 《KBS》, 2010년 7월 18일; 「한국 현대사의 새 문 연, 자료 전문가 방선주», 《한겨레》, 2018년 10월 18일.

그래서 이제 저기 학진을 설득해 가지고 이게 포닥이 없는데 그냥 저기 비지팅 스칼라(visiting scholar)로 이제 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큰애 데리고 이제 큰애만 있었으니까 96년 이제 10월 21일날 이제 왔는데 갔죠. 이제 와이프랑 같이 그래서 D.C.에 가서 이제 이 집도 구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료를 이제 더 찾고 내셔널 아카이브(National Archives)에 가서 자료, 자료를 방선주 선생님의 후원과 함께 이제 했죠. 방선주 선생님은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 제가 있을 때 해외 사료 조사위원으로 모셨던 본인데 이제 워싱턴 D.C.에 이제 근교 메릴랜드에 이제 거주하시면서 내셔널 아카이브 미국 국립문서보관청에 이제 거의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한국 관계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국사편찬위원회에 이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그분을 이제 미국 출장 시에 1992년인지, 3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출장 시에 뵙고 이제 96년에 이제 가서 이제 또 뵈죠. 뵙고 이제 그분의 주장은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언론에 이렇게 반짝할 자료만 찾는다. 신문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하나 특종 터뜨릴 만한 거 없느냐 그래서 상대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진짜 이 진득허니 앉아가지고 공부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자료를 이제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외면해 버린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진득허니 앉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좀 여러 가지 팁들을 알려 주시고 그래서 이제 96년 10월부터 이제 97년 6월 21일까지 이제 있었죠.

### 3. 전업연구자의 길: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연구자 정체성

이완범은 미국 생활 중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설치된 현대사연구소의 구성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한다. 그는 채용 과정에 지원하고자 일시 귀국한다. 그의 일시 귀국은 완전 귀국이 되었다.

그렇게 그는 현대사연구소의 일원이 되었지만 1998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현대사연구소는 전임 정부의 유산으로 여겨져 정리 대상이 되고 만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국학대학원 본원으로 이동해 정치학 전공의 교수가 된다. 그렇게 그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전업연구자가 되어 연구를 이어 가는 동시에 교육자로서 외국인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는 연구자로서 별다른 전환점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전업연구자가 된 것과 외국인 학생들과의 만남만큼은 자신의 삶과 학문적 인식의 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1979년에 대학 입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나 자신은 별로 변한 게 없다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무슨 전환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제 그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것은 없어요. 다만 이제 97년에 우리 연구원에 들어와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 일종의 전기는 될 수 있었겠죠. ...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학생들과의 이제 뭐라 그러냐 그 인터랙션(interaction)인데 요. ... 외국인 학생들과 이제 교류를 하면서 그래서 나의 생각이 상당히 로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가지고 이제 연구원의 자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관심이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 그러니까 국익적인 관심에서 이제 이 글로벌한 관점으로 이제 좀 그것은 뭐 전회라고 하면 턴(turn)이라고 보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이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는 이후 자신의 연구 세계를 확장하며 전업연구자로서 학위논문에서 던진 질문을 풀어가는 후속 연구를 해 나간다. 일례로 그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에서 자신의 석사학위논문 연구에서 가졌던 한반도 분할사에 대한 문제 의식을 확장하는 후속 연구를 한다. 그는 한반도 분할의 시간적 범위를 넓혀 임

진왜란 이후 명과 일본 사이의 분할 논쟁을 탐구했다.<sup>12</sup> 나아가 한반도 분할부터 그 이후의 한국 정치 변동의 주요한 외인(外因)이었던 미국의 의도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한반도 정치 문제를 설명하고자 했다.<sup>13</sup> 그가 이러한 학문적 시도를 오늘날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처럼 한국학중앙연구원 입직이 중요한 전기로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완범이 수행한 연구의 핵심적 특징은 역사적 접근법을 일관하여 활용했다는 점이다. 석사학위논문을 위한 연구부터 현재까지 그가 해 온 연구 방법은 대부분 역사적 접근법에 기반한다. 방대한 사료를 확보하고 분석함으로써 기존 논의에 대한 비판과 복합적인 시각의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 그의 연구의 특징이다.

석사학위논문을 위한 연구에서 그는 한반도 신탁통치에 관한 ‘반탁’과 ‘지지’의 논리 외에 제3의 논리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역사적 접근 방법을 최초로 활용한다. 그는 신탁통치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역사적 접근법을 활용해 연대기적 순서로 재구성하고 기술한 뒤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다.<sup>14</sup>

미국의 한반도 38선 획정에 관한 문제를 다룬 박사학위논문에서 그는 기존의 정치적 의도설과 군사적 편의설에 기반한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군사적 편의설을 전통주의적 입장, 정치적 의도설을 수정주의적 입장으로 분류하고 그는 후기수정주의적 입장에서 미국의 38선 획정 문제를 다루

---

12 이완범, 「임진왜란의 국제정치학」, 『한국학』 25-4(2002), 89-137쪽; 이완범, 『한반도 분할의 역사: 임진왜란에서 6·25전쟁까지』(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13 한국 정치의 변동을 미국과 미국의 의지라는 외인에 입각해 분석하려고 했던 그의 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성과물로 『미국의 한국 정치 개입사 연구』 시리즈를 제시할 수 있다. 그는 1950년대 이승만부터 1980년대 전두환까지, 이들에 대한 미국의 계획과 의지를 다양한 사료를 통해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했다.

14 이완범, 「한반도 신탁통치안과 국내정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5), 2-6쪽.

고자 한다. 그는 자신의 후기수정주의적 입장을 뒷받침하고 사료 분석을 통한 실증적 검증을 하기 위해 역사적 접근법을 활용한다. 공개되었으나 사실 확인이 두렵지 않은 사료, 증언 등을 역사적으로 고증하고 연대기적인 서술을 하는 것이 역사적 접근법 활용의 목적임을 밝히고 이를 통해 38선 획정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구상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재구성해 분석했다.<sup>15</sup> 그는 이러한 역사적 접근법이 정치학 연구의 기초적인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정치학을 이제 연구함에 있어서 역사적인 접근, 히스토리컬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초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접근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거, 그것에 바탕을 뒤 가지고 뭐 비교정치를 한다든지 국제정치를 한다든지 정치사상을 한다든지 정치이론을 한다든지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그가 무조건 역사적 접근법에만 의존했던 건 아니다. 그는 역사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해석학과 반사실적 가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 현상학이라든가 이제 해석학, 독일식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규명하려고 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주로 하는 게 역사를 디스크립션(description) 하는 거거든요. 디스크라이브(describe), 그러니까 기술하는 건데 그 단순 기술에서 벗어나서 좀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역사의 팩트 이면에

---

15 이완범, 「美國의 韓半島 分割線 劃定에 관한 研究(1944-1945)」,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4), 3~12쪽.

숨겨진 것을 이제 해석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저기 디스크라이브만 하니까 이거를 이제 분석을 좀 해야 된다. 분석 그러니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과관계를 이제 규명하는 거잖아요.

반사실적 가정은 사실은 이제 역사학도들에게는 이제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과학도들에게는 그러한 반사실적 가정을 통해서 이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기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 활용, 활용을 하되 이제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는 없다. 역시 의존해야 될 것은 다큐먼트(document)고 다큐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문이 아닌 잔적 그러니까 이 그 하드 에비던스(hard evidence), 물증으로서의 이 다큐먼트가 중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는 연구 방법론에 대해 말하며 자신이 역사학자가 아닌 사회과학자이자 정치학자임을 드러냈다. 역사학자처럼 사료에만 의존해 기술(記述)과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제한적인 수준에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한 추정의 필요와 활용에 대한 발언에서 그의 사회과학자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사료로 이 사실이 규명이 안 될 때는 크로스 체크, 그러니. 그리고 이제 그 추정, 추정을 하면 이게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이제 추정이 라고 하는 게 이 증거 능력을 상실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그런데 이제 이거는 나의 어떻게 보면 사적인 연구잖아요. 그래서 사적인 연구에서 추론이나 추정은 자유롭다. 자유롭게 이 사회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한다고 그럴까요? 소시올로지컬 이메지네이션(sociological imagination)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사이에 이제 관계를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이제 이 리플렉

선(reflection), 성찰을 통해가지고 이제 규명해 보려고 하는 시도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추론과 추정이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제한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이 설명력을 갖춘 것은 역시 이제 사료에 의해서 이제 검증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편 이완범은 외부로부터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의심과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술회했다. 그는 정치학자 사이에서는 역사학자로 역사학자 사이에서는 정치학자로 인식되는 경계인이었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했다.

그러면 이제 너는 정치학자나 역사학자나 이렇게 물어볼 때 저는 그 질문이 그럼 뭐 꼭 그렇게 두부 모 가르듯이 무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이.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어떤 정치학자들 모임에 갔었는데 ‘당신은 저기 국사편찬위원회도 있었고 그래서 역사학자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이제 정치학 전공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나는 뭐 스스로 정치학에서 이제 주전공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이제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로 역사학과 정치학의 이제 경계쯤에 있었다. 저의 학문적인 역정(歷程)이 이제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사학자 취급을 받고 그 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정치학자 취급을 받는 마지날 맨(marginal man)이라고나 할까요? 한계인으로서 이제 일생을 살았다.

단일한 연구 방법론 적용과 이론적 틀의 부재는 그의 연구를 향한 비판의 주된 근거였다. 그 역시도 이론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료 중심의 연구가 보이는 맹목성에 대해 충분히 경계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연구의 출발점을 선행 연구로 삼고 있으며 사료에 대한 정밀하고 복합적

인 해석을 통해 연구와 연구 사이의 공백을 메워 나가는 것이 본인 연구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原)사료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단순히 사료에만 의존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우선 선행 연구와 사료의 관계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6</sup> 자료와 자료, 자료와 사건 속 주체의 의도, 기존 연구와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그의 역사적 접근법과 해석학에 기반한 반사실적 가정의 활용의 목적과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론적인 그러니까 어널리시스(analysis)가 이제 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의 방법론에 대한 방법론적인 비판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나는 이제 이 사실 나열을 위주로 이 글을 쓰다 보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무엇을 이제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이제 인정을 하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사실 확인조차도 안 돼 있다 팩트 파인딩(fact finding)도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지점에서 착안해서 사실 확인을 이제 추구한 거죠. 저의 이 46년 정치학 일생이.

한편 그는 자신의 연구가 논쟁의 장을 열고 새로운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했다. 본인의 연구가 사료와 선행 연구에 빛을 진 것처럼 자신의 연구가 새로운 논의의 시작점이 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연구 결과에 기대한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고 해석한 연구에 대해 그가 직접 밝힌 의도를 통해서 이러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16 이완범, 「나의 한국정치사 연구」, 『이완범 선생님 정년 퇴임 강연집: 한국정치사의 길』 (2025), 67~69쪽.

모든 게 다 이렇게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럼 박정희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너의 생각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뭐 이제 저는 이제 가중치를 둘 수 있다. … 그럼 박정희가 더 큰 거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쟁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논쟁의 장을 만들고자 함이었는데<sup>17</sup> 그 논쟁이 이제 제대로 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뭐 그 확실한 결실을 맺지는 못합니다만 저의 복합론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 드러내서 보여 줌으로 해서 이 후배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그 기반 위에서 이제 어떤 각각의 독자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밑거름이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테제(these)를 던져 본 것이다 그렇게 보면 어떨까 합니다.

구술생애사 면담이 거의 끝나 갈 무렵, 정치학과 한국학 연구자로서 그의 바람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후학에 대한 그의 바람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두 질문에 대한 대답에 앞서 먼저 미국 학계 시선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한국정치에 관한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했던 자신의 노력을 이야기했다.

이제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만든 국가가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이 사대적인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이제 이 아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 뿐 미국 사람들의 분단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

---

17 이완범, 「박정희 경제기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박정희 경제기적에서 ‘대한민국의 기적적 성과’로」,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대회』(2007), 57-70쪽; 이완범, 「제3장 산업화시대」, 홍태영·박규열·이완범·김일영·차상철·노영구, 『안보적 관점에서 본 한국 현대사』(서울: 오름, 2009); 이완범, 「1964년 「세대」지 필화사건과 황용주(1918-2001)」, 『21세기 정치학회보』 25-1(2015), 53-79쪽.

서는 좀, 좀 인색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책임을 어디까지 지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천착을 하다가 이제 38선 그리고 신탁통치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 그리고 미국의 대한 정책이 한국의 이제 최고지도자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등에 대한 제거 공작으로 이제 표출되었음을 이제 확인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일관성 있게 규명해 보고자 했거든요.

저의 생각은 한반도에 대해서 뭐 주도면밀하게 구상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 이전부터 남쪽과 북쪽을 나누려고 하는 의식은 있었다. 그것에 귀착이 이제 7월 25일 혈선(線),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8월 11일에 ‘딘 러스크(David Dean Rusk)의 38선’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귀착이 된 것이다. 그래서 전혀 준비 없이 그어진 군사적 편에 따라서 그어진 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정치적인 의도라고 하는 것은 이 소련의 남진을 스톱시키는 그러한 이 분할선을 그으려고 했다고 하는 게 이제 이 1945년부터. 그러니까 이 8월 11일보다 전에 그게 이제 저의 주장인데 아직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히스토리안들은 이제 8월 11일날 이제 성급하게 그랬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의 주장은 뭐 그 시기를 좀 앞당겨서 그리고 이제 이 정치적인 의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미국의 책임 그런 것은 이제 강조하려는 그러한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미국의 책임을 이제 강조하려는 입장에 입각해서 1948년 단독 정부 수립도 이제 그 고찰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단독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제 한국 정치에 개입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 이승만 제거 작전 그리고 박정희 제거 작전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제거 구상 그런 쪽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미국의 대한 정책사를 이제 조망하고 있어요.

한편 그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지도한 학생들이 자신이 해온

연구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후학들에게 원한 것은 자신이 신탁통치와 한반도 분할 문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개척했던 것처럼 자신만의 연구 주제를 개척하여 나가는 태도였다.

그리고 이제 학위를 이제 나는 이제 그 논문 주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개개인의 의견을 이제 이 제일 중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의 논문 주제나 뭐 공부 주제나 이런 거를 스스로 개척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이게 학생이 자진해서 뭐 그런 걸 하겠다고 그럴 때 말리지는 않지만 자기한테 어울리는 그러한 것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따라서 정해서 가는 것을 이제 더 고무하는 편이지

또, 언젠가는 후학들이 그의 은퇴 이후에 공개될 미국 대통령 사료관의 자료를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후학에 대한 소망과 함께, 연구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자료를 이제 발굴할 수 있는 그 대통령기록관에서 이제 원사료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이루지 못한 꿈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나가는 그러한 정책을 조명해 보고자 함인데 그런 그런 후속 작업을 이제 후계 세대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작업을 기본적인, 기초적인 작업은 이제 요즘은 인터넷으로 자료를 많이 구독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이제 새로 공개되는 자료를 이제 구독을 해서 이제 보다 저기 세밀한 디테일

은 이제 그 레이건 라이브러리에 가서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이제 하면은 조금 이제 저의 후속, 이제 내가 이제 학문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접을 텐데 접더라도 이제 그것을 이제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는 있습니다.

## IV. 맺음말

---

### 1. 시대 맥락 속의 연구자 이완범

글로만 그를 접했을 때, 그는 시류에서 벗어난 탈맥락적인 연구자처럼 보였다. 그는 한결같이 역사적 접근법과 해석학에 기반한 반사실적 가정을 활용해 신탁통치와 한반도 분할 문제에만 집중해 왔기 때문이다. ‘1986년의 이완범’이 시작한 한반도 연구를 ‘2026년의 이완범’ 역시 한순간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러한 그의 모습은 구술생애사 면담의 이유가 되었다.

구술생애사 면담만으로 그의 학문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구술생애사 면담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그가 탈맥락적인 연구자가 아니었다는 것만큼은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로서의 그의 삶은 차원, 전회, 적응이 뒤엉킨 상황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았다. 그의 출생 이전에 있었던 가족의 월남과 정착사는 그의 성장과 정치학 입문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79년의 10.26사태, 12.12사태와 서울의 봄, 그리고 전두환 신군부의 1980년대는 대학생 이완범에게 시대에 저항하는 방식에 관한 고민을 남겼다. 고민 끝에 그가 선택한 것은 사회과학 공부였다. 목하회 입회 이후 그는 독일 유학을 고민했지만, 선배의 만류와 동백림 사건은 그가 독일이 아닌 한국에 남게 했다. 미국행을 고민할 때도 1980년대 학계의 내셔널리즘은 그를

한국에 붙잡아 두었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의 일환으로 설치된 현대사연구소가 아니었다면 그는 다른 곳에서 연구자로 일생을 보내거나 다른 일을 하며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생애와 학문 궤적은 그가 살아온 시대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았다. 그가 자신의 연구에서 즐겨 사용하는 반사실적 가정을 그의 생애와 학문 궤적에 적용해 본다면 그의 삶은 전혀 다른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기에 그는 시대로부터 초월한 존재가 아닌 시대 그 자체에 영향을 받는 연구자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토대로 그의 학문 궤적에 접근한다면 이전보다 더 높은 해상도로 그의 연구를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2. 새로운 정치학과 한국학의 개척자 이완범

차원, 전회, 적응 개념으로만 그의 생애와 학문 궤적을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는 시대의 영향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학문 세계를 개척한 개척자이기도 했다. 그는 석사학위논문을 시작으로 연구를 통해 자신에게 새로운 숙제를 끊임없이 던졌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하나씩 풀어 나가는 것으로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학문의 흐름과 유행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유행하는 연구 방법론이나 주제는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학문 궤적을 그려왔다. 적어도 연구자로서 그는 눈에 띄는 아쉬움이나 후회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굳이 그가 드러낸 아쉬움을 찾자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료들에 접근해 젊은 날의 연구자 이완범으로서 연구할 수 없다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것뿐이다. 그렇지만 그는 그 아쉬움을 정치학과 한국학을 공부하는 후학에게 그의 유일한 바람이자 숙제로 남겨 주며 스스로를 달랬다.

### 3. 이완범으로 시작된 정치학자 읽기

하나의 질문과 또 다른 하나의 궁금증으로 시작한 구술생애사를 통한 정치학자 이완범의 생애와 학문 궤적 읽기는 그의 학문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유효했다. 그러나 차원, 전회, 적응을 개념에 기반한 생애 분석을 통한 학문 궤적에 대한 이해에 집중한 까닭에 연구사적 맥락 속에서 그의 신탁통치와 한반도 분할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본 연구에서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변하지 않은 정치학자 이완범만큼 세상도 변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세상은 변했기에 그가 이토록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지를 논하기 위한 작업에도 충분한 무게를 두지 못했다. 추후 정치학자 이완범의 학문 세계를 더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애사를 통한 접근뿐만 아니라 그가 연구자로 살아온 시간 속에서 형성된 연구사와 그 맥락 그리고 학문 세계 밖의 세상이라는 맥락 속에서 정치학자 이완범과 그의 연구가 가지는 위치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치학자 이완범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학문 세계를 꾸려 온 또 다른 정치학자를 이해하는 데도 분명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상술한 두 가지 부분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구술생애사를 기반으로 한 본 연구가 정치학자 이완범의 학문 세계를 이해하고 뒤따르려는 이들에게 미미할지라도 의미 있는 안내서가 되어 이완범 정치학 새 로 읽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KBS》.

### 2. 논저

김학준, 「대한제국 시기 정치학 수용의 선구자 안국선의 정치학: 그의 생애와 정치학 관련 저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7-1, 1997, 29~48쪽.

박명림·이완범·김명섭·백일·신형기, 『해방전후사의 인식 6: 남북한 해방전후사 연구의 성과와 입장에 대한 종합적 안내』, 파주: 한길사, 2006.

박지향·김철·김일영·이영훈,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서울: 책세상, 2006.

박현채·안진·양동주·여현덕·임현영·한중상·이완범·김남식·김태승·박해숙·황남준, 『해방전후사의 인식 3: 정치·사회 운동의 혁명적 전개와 사상적 노선』, 파주: 한길사, 2004.

예대열, 「열전의 경험과 냉전의 경계 월경: 순천 출신 재독 정치학자 조명훈의 생애사」, 『탐라문화』 76, 2024, 99~144쪽.

예대열, 「개인 기록을 통해 본 해방 공간 순천: 재독 정치학자 조명훈의 중학 시절 일기를 중심으로」, 『사충』 116, 2025, 1~40쪽.

이완범, 「한반도 신탁통치안과 국내정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이완범, 「해방직후 민족통일 운동에 관한 일 연구: 임정·인공 간 합작 노력과 4당 행동 통일 회의를 중심으로 1945. 12. 31-1946. 1. 16」, 『원우론집』 15-1, 1987, 235~259쪽.

이완범, 「美國의 韓半島 分割線 劃定에 관한 研究(1944-1945)」,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이완범, 「임진왜란의 국제정치학」, 『한국학』 25-4, 2002, 89~137쪽.

이완범, 「박정희 경제기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박정희 경제기적에서 '대한민국의 기적적 성과'로」,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대회』, 2007, 57~70쪽.

이완범, 『한반도 분할의 역사: 임진왜란에서 6·25전쟁까지』,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이완범, 「1964년 '세대'지 필화사건과 황용주(1918-2001)」, 『21세기 정치학회보』 25-1, 2015, 53~79쪽.

- 이완범, 『신탁통치 1: 이론과 글로벌 사례』,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3a.
- 이완범, 『신탁통치 2: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안』,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3b.
- 이완범, 『신탁통치 3: 한국 정치세력의 인식과 대응』,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3c.
- 이완범, 「나의 한국정치사 연구」, 『이완범 선생님 정년 퇴임 강연집: 한국정치사의 길』, 2025, 69~100쪽.
- 최장집·정해구·류상영·김명섭·김남식·고창훈·한준상·정미숙·임현영·최열·이효인·이완범, 『해방전후사의 인식 4: 민중항쟁·무장투쟁·문화예술운동·한국전쟁의 해명』, 광주: 한길사, 2006.
- 홍태영·박균열·이완범·김일영·차상철·노영구, 『안보적 관점에서 본 한국 현대사』, 서울: 오름, 2009.
- Mandelbaum, David G., "The Study of Life History: Gandhi," *Current Anthropology*, Vol. 14, No. 3, 1973, pp.177~206.

### 3. 기타

- 「금주의 학술모임」, 《동아일보》, 1988년 1월 26일.
- 「동백림사건」, 『민주화운동사전』.
- 「동백림 사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新進학자 전용 發表공간 생긴다」, 《경향신문》, 1989년 9월 26일.
- 「태백산맥 '해방공간' 묘사 타당한가」, 《한겨레》, 1989년 8월 4일.
- 「한국 현대사의 새 문 연, 자료 전문가 방선주」, 《한겨레》, 2018년 10월 18일.
- 「114년 전 조선인 최초의 목소리, 지하실에 잠들어 있던 역사」, 《KBS》, 2010년 7월 18일.
- 「1986년 미국서 녹음한 '한민족 첫 음반' 목소리 주인공 2명 찾았다」, 《한국일보》, 2009년 2월 13일.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정치학자 이완범의 생애와 학문적 선택을 구술생에서 면담을 통해 살펴보고 생애 조건과 시대 맥락 속에서 그가 어떻게 자신의 학문 궤적을 그렸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그에 대한 구술생에서 면담을 진행해 그의 생애에 있어 차원(dimensions), 전회(turnings), 적응(adaptations)과 관련된 특정 순간(momentum)을 포착했다.

해방 이후 월남한 양친 밑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들은 가족사는 그가 그의 평생의 연구 주제인 신탁통치와 한반도 분할사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연세대학교 입학 후 1980년대 정치 상황에서 대학생으로 시대에 저항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던 그는 이념 서클 목하회의 일원이 된다. 목하회에서 그가 만난 책과 사람은 연구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의 삶의 계획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쳤다. 학위 과정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과 기회 역시도 그의 삶과 학문 궤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입직 이후 전업연구자로서 삶을 살게 된 그는 시대와 사람, 환경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 지금의 정치학자 이완범이 되었다. 동시에, 그는 시류에 따르지 않고 신탁통치와 한반도 분할사 문제를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손에서 놓지 않고 자신의 확고한 연구 세계를 구성해 나가는 개척자이기도 했다. 이 연구 결과는 신탁통치와 한반도 분할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의 학문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투고일 2026. 1. 5.

심사일 2026. 1. 29.

게재 확정일 2026. 2. 25.

주제어(keywords) 이완범(Lee Wan-beom), 정치학(political science), 한국학(Korean studies), 구술생애사(oral history), 한국학중앙연구원(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Abstract

### Life and Academic Trajectory of Lee Wan-beom, a Political Scientist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Kim, Seongjin & Go, Yuhyun**

This paper examines the life and academic trajectory of Lee Wan-beom, a political scientist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Drawing on interviews and applying oral history methods, it identifies the key moments that shaped his intellectual development and scholarly career, touching on concepts such as dimensions, turnings, and adaptations.

The interviews reveal that Lee's academic interests and research were consistently influenced by his family history and the broader historical context of his time. His parents moved south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in pursuit of a liberal society, and their experiences of migration and settlement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his academic interest in the issue of trusteeship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980s, he devoted himself to studying the social sciences rather than participating in student movements against the newly emerging military regime. This decision led him to encounter books and colleagues who profoundly influenced his life and academic trajectory.

This paper argues that Lee Wan-beom, both as a political scientist and individual, was shaped by the transformations and challenges of his historical era. It also serves as a guide for understanding the intellectual foundations and development of his scholarship.